



민족문자출판물특별보조프로젝트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 아리랑

리용득 수집정리



요녕민족출판사

민족문자출판물특별보조프로젝트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 아리랑

리홍득 수집정리



요녕민족출판사

© 李龙得 2018

###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阿里郎：朝鲜文 / 李龙得收集整理. —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8.12

(中国朝鲜族民间故事丛书)

ISBN 978-7-5497-1949-5

I. ①阿… II. ①李… III. ①朝鲜族—民间故事—作品集—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7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8)第250401号

阿里郎

ALILANG

---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辽宁鼎籍数码科技有限公司

幅 面 尺 寸：170mm×240mm

印 张：12.75

字 数：200千字

印 数：1-1000

出版 时间：2018年12月第1版

印刷 时间：2018年12月第1次印刷

责任 编辑：金顺玉

封面 设计：杜 江

责任 校对：边京爱

---

标准书号：ISBN 978-7-5497-1949-5

定 价：30.00元

网 址：[www.lnmzcsbs.com](http://www.lnmzcsbs.com)

邮购热线：024-23284335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联系电话：024-23284340



## 차례

<b>사랑편</b> //	
첫날밤의 사화.....	1
“아, 아, 저 꽃을!” .....	13
박문수가 증매를 서다.....	19
소녀와 원님.....	26
리선비와 기생.....	32
박어사와 박도령.....	41
이부렐녀.....	50
숙종임금의 취빈.....	58
일행견삼쾌사.....	66
한 청춘과부의 궁량.....	74
사위감 신랑감.....	80
녕변군수와 평양감사.....	82
외도 끝에 동태가 되다.....	88
나라 구한 미남자.....	96
한 임금의 사랑이야기.....	100
남가일몽.....	104
박어사의 덕행.....	109

## 2 아리랑

사랑바위 .....	113
녀자 도적질 .....	117
아리랑 .....	121

## 럼결봉공편

뒤문거래와 조대감 .....	125
땅문서를 불사른 재상 .....	132
혼쌀먹은 암행어사 .....	137
악법을 없앤 부사 .....	139
꿀과 잣 .....	140
아들더러 새집 팔게 한 황정승 .....	142
퇴거대감의 거조 .....	144
평을 되돌리다 .....	151
추녀 밑에 달아맨 피륙과 통닭 .....	154
누구의 삼인고? .....	156
산삼 두뿌리 .....	158
장거리에 나갔던 황희정승 .....	160
한때의 소홀을 큰 교훈 삼아 .....	163
값진 해삼 퇴물을 받고 .....	167
나라돈 아낀 리원의 대감 .....	169
결인청을 세운 리지함 .....	170
김유신이 사위와 딸을 전장으로 .....	172
계란에도 뼈가 있다 .....	174
소탐대실 .....	177
고관대작의 청렴에 개과천선한 도적 .....	178
미녀보다 국사를 우선시한 성인 .....	181

칠전팔기 .....	183
어사 촌로인의 생일상을 차려.....	186
조석으로 산 우에 오른 갑부 .....	188
사랑은 대행을 허락치 않는다.....	190

## 조심과 경계편

침통에 꽃힌 핑의 꿈지털 .....	192
안해의 악몽 남편의 행운.....	195
의심이 병 .....	198
알수록 진중하라 .....	200

# 사랑편



## 첫날밤의 사화

어느덧 초례청의 행사도 끝나고 신랑 방진은 드디어 신방에 들게 되었다.

신랑이 신방에 들자 옥모화용의 신부는 역시 초례청에 나갔던 그 차림 그대로 칠보 족두리를 쓰고 라삼을 입고 한삼으로 손을 가리운 채 그린 듯 앉아있었다.

이 때 웃목에는 쌍초불이 황황 타고 운모병풍 둘러친 앞에는 다담상까지 아담하게 차려져 있었다.

생각만해도 진진하고 아늑한 밀월의 밤이다.

신랑은 먼저 자기의 갓과 두루마기를 벗어 한쪽에 밀어놓은 뒤 신부의 뒤로 가서 두팔 밑에 손을 살짝 넣어 아래턱 족두리끈을 살랑 풀고 족두리를 벗긴 다음 라삼을 벗기기 시작했다.

“자, 요새 과시 지쳤는데 인젠 그만 약과나 좀 들고 자리에 듭시다.”



신랑은 이렇게 말하며 죽절로 자그만한 색과자 하나를 집어서 신부에게 권한다.

그러나 신부는 남자의 란만한 수작은 아는지 모르는지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아까부터 두손으로 턱을 고인 채 묵묵반응으로 도무지 말이 없다.

“아니, 여보 웬일이요?”

신랑은 신부를 살짝 흔들다 말고 우선 술 한잔 쪽 따라 마신 다음 다시 다가가 신부의 면관을 찬찬히 들여다 본다.

헌데 신부의 꽃 같은 얼굴의 새별같던 눈에서는 쌍루종횡으로 두줄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 이제 바야흐로 본가집을 하직하고 남편을 따라 사람선 타가로 간다고 하여 섭섭 안할 수가 있겠소만 이것이 인간 법인데사 무슨 수가 있겠소. 자, 어서 눈물을 거두고 그만 자리를 습시다.”

신랑 역시 신부의 눈물을 보자 룡을 하고 음식 들 뜻이 싹 사그러지는 지라 이렇게 신부를 달래며 자리에 들기를 재촉했다.

그러나 신부는 여전히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니 이제는 마구 엎드려 흑흑 흐느껴 울기까지 한다.

“아니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지자는 막여부라 했지만 색시의 심중은 도무지 모를 일이라 어지간히 황급해난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역시 찼찼 매기만 한다.

한참 흐느껴 울고난 신부는 드디어 복지대왈한 채 신랑을 보고 입을 열었다.

“여보시요 랑군님, 나는 랑군님의 랑자가 될 자격이 없는 한낱 천한 여자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생똥 같은 소리요?”

“랑군님,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은 몸이웨다.”

“뭘, 뭘, 뭘이라오? 그래 아이를 낳았다?”

신랑의 귀에는 실로 청천벽력의 소리였다.

아니 이것은 정녕 꿈에서만 들을 수 있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여보세요 랑군님! 나는 시집오기 바로 열흘 전에 해산을 한 몸이랍

니다.”

아니 이게 그래 정말이란 말인가?

“아니 여보, 이 도대체 무슨 실없는 소리요? 시집도 아니온 당신이 해산부터 하다니?”

신랑은 격한 나머지 그린 듯 앉아있는 신부를 마구 잡아흔들며 소리쳤다.

“여보, 당신이 해산을 했더니 이게 도대체 꿈에서 하는 소리요? 진정 생시에 하는 소리요?”

“랑군님, 이게 어느 앞이라고 제가 그래 일구이언으로 랑군님을 기이오리까? 정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보시라요.”

그러더니 신부는 스스로 낫그릇 하나를 갖다 앞에 놓은 뒤 감싼 젖통 싸개를 풀어 헤치더니 뚝뚝 불어난 젖통의 꼭지를 쥐고 꾸르륵꾸르륵 젖을 짜다.

잠간새 두통에서 짠 젖은 한보시기 철철 넘쳐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감투끈이요?”

“일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왜 진작 연통을 못했단 말이요.”

남자는 분기대발 펄펄 뛰는데 녀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허나 량가문호의 소위 지체높은 가문, 이미 두해 전에 맺어진 인류대사를 어찌 이런 해참한 일로 하여 줄지에 단절을 한단 말이오리까. 세상이 목이 두려워 여태 이 일을 극비에 덮어버리고 대사에 순응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아, 세상살다 이런 법도 다 있는가?

예로부터 혼인은 종신대사, 지금으로부터 종고지락을 함께 누리려 했더니 내 평생에 한번 밖에 없는 혼인대사의 단 하나 밖에 없는 옥면봉안의 대상자가 이렇게 질탕방자한 여자일 줄은 어찌 짐작이나 했으랴!

신랑은 화가 났고 앞이 캄캄하였다.

“아, 이 모든 것도 나의 기박한 팔자소관 천수란말인가? 아니 차라리 이것이 침상일몽이면 작히나 좋으랴!”



닭이야 울며는 이 밤이 새건만  
 물레는 울어도 쌀 줄은 모르네.  
 예야 디야 에헤테야  
 예야라 디야라 산아지로구나.

나는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행보정첩 슬슬 걸어갔소. 이윽고 아담한 외  
 초당 하나가 불끈 솟아있고 그 창가에는 남자인 듯도 하고 여자인 듯도 한  
 그림자가 얼른얼른 비껴 있었소. 발끝걸음으로 창가에까지 다가간 나는 그  
 내막을 알고 싶어 침을 살짝 창호지에 발라 구멍을 낸 뒤 안을 들여다 보았  
 소. 그 순간 나는 초풍할 듯 놀랐소. 방년 20세 다 된 듯한 절세가인이 앉아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고 있는데 그 곁 도리상에는 술한 책들이 무드기 쌓여  
 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보아하니 글 수학하는 째짤이 머리로 쉬우고 이렇  
 게 거문고를 뜯고 있는 천금옥녀가 분명하였소. ‘이리 크지 않은 시골에도  
 이런 큰 뜻을 가진 절세의 랑녀가 다 있구나. 하지만 옥안박명이라 그 무슨  
 구곡간장 타는 일 있어 이렇게 유심한 곡을 다 뜯노?’ 예까지 생각한 나는  
 저도 몰래 ‘아!’ 하고 장탄식을 했소. 나의 그 소리와 더불어 안에서는 거문  
 고소리 똑 멎고 ‘애 곱단아!’ 하는 소리가 났소. 그러자 ‘네!’ 하고 한 녀인이  
 대답했소. ‘밖에 인기척이 나는데 어서 나가 보아라.’ ‘네.’ 대답소리와 함께  
 문이 팔짝 열리며 나오는 끌신소리에 나는 아차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여 그  
 대로 담벽 쪽으로 내뒹였었소. 그러나 나에게 나래가 돋히지 않은 이상 어  
 썩 썩 안침진 안뜰에서 쉽사리 담벽을 뛰어 넘을 수가 있겠소? ‘웬 도적인  
 데 이렇게 심처에 뛰어들었느냐?’는 하녀의 양갈진 소리에 나는 그대로 뛰  
 면 더욱 루명만 쓸 것 같아 인차 돌아섰소. ‘저, 저는 도적이 아니올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며 쳐다보니 어느덧 나의 앞에는 다른 한 녀인이 섰는데  
 거문고 뜯던 아씨 또한 몸종 뒤에 그린 듯 서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 도적놈이 아니라면 왜 하필 자야밤중에 남의 담벽을 뛰어들어 우  
 리 아씨별당에까지 박근했느냐?’

몸종의 오달진 말에 나는 몹시 떨리는 소리로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내가 이곳 삼촌네 댁에 불일이 있어 왔다는 것, 저녁 유흥으로 나왔다 은은한 거문고소리에 끌려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것, 나는 서울 사는 아무 재상가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그대로 줄줄 다 외워바치지 않을 수 없었소. 그러자 그 아씨 있다가 ‘정녕 그러하시다면 더 사양 마시고 이 별채에 들어가 그 진가여부를 밝혀주세요.’라고 청드는 것이 아니겠소. 하여 나는 그대로 코를 꿰운 송아지가 되어 아씨 방에까지 줄줄 팔려 들어가게 되었었소. 아씨는 몸종더러 약간의 주안상을 차려 나를 대접케 한 뒤 오늘의 시국형세는 물론 그 앞에 가득 쌓아놓은 천자, 사서, 삼경, 당음, 당률, 레기... 책의 구구절절을 묻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10년나마 수학을 쌓아 온 나로서 크게 막힘이 없었소. 한동안 물어 문일지십이요 청산류수라 느꼈던지 아씨는 두눈이 울롱해지는 듯하더니 ‘틀림없나이다. 이 소저 비로소 공자님이 귀한 가문과 다학박식을 알고도 남음이 있겠나이다.’ 하더니 방금 전까지 외람되게 지꼈었노라 사과함과 아울러 다시 몸종더러 주안상을 잘 차려들여 오도록 한 후 섬섬옥수 두손으로 술을 부어올리며 은근히 묻는 것이 아니겠소.

‘말씀드리긴 황송하오나 귀공자님께서서는 성가하신 몸이겠지요?’

‘아직 장가 전이 올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씨는 만면춘풍으로 몹시 반색하더니 일배일배 부일배 술이 오가고... 제법 자리가 어울려지게 되자 끝내 입을 열더란 말이요.

‘이 소저 수학수신 몇해 사이 부모님의 엄한 단속을 받아 추호도 외람된 마음이 없더니 오늘 이 밤따라 귀공자님을 오시도록 하고 더불어 한자리 함께하여 고금내외사를 담론함도 이 모든 게 하늘이 맺어준 뜻이요 인연이라 마다하지만 안하시면 평생을 깎듯이 모실가 하나이다.’

하, 이거 정말 큰일이 났지요. 글썸 미모로 보든, 학식을 보든, 품은 뜻을 보든 다 밑질 것 없는 녀자의 진정이 푹푹 흘러 떨어지는 심곡소회 나의 일언지하에 금침이 포설되고 어수지락도 펼쳐질 판, 그러나 나는 이미 정혼을 한 몸, 일낙천금의 그 랑자, 바로 당신을 보더라도 어찌 경박정홀이 범할 수가 있겠소!

‘랑자의 말은 심히 감격하오나 저로 말하면 너무나 짝이 기운 몸이라 응할 수가 없나이다.’

내 좋은 말로 사절하나 검질기게 달라붙는 아씨

‘비록 우리는 서울 장안 고루거각의 명문거족은 못되오나 시골서는 여유한 가문, 우리지간 뜻이 의합이 되고 만리전정을 가늠해 간다면 이에서 더한 다행 없겠거늘 더 사양을 마시라.’고 하지 않겠소.

그러나 아무리 가세가 유여하고 당사자가 완미한들 초면강산에 마음을 기울여 휘절할 내가 아니었소. 나는 생각 끝에 한칼에 베기로 하고 일 어났지요.

‘랑자의 뜻은 심히 감격하오나 저로 말하면 이미 배필을 정한 몸, 다시 더 말씀을 마사이다.’ 그러나 녀자는 나의 뜻을 더 당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자신의 경거망동함을 만만사례로 언파한 후 ‘애야!’ 하고 몸종을 부르더니 ‘어서 이 비단필을 늘여 공자님께서 담벽을 쉬이 넘어가시도록 해드려라.’ 하였소. 이렇게 가랑가랑 말하는 랑자의 고운 두눈엔 이슬이 맺혔소. 나는 그대로 인사한 후 담벽계로 걸음발을 재우쳤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였소? 이 모든 것은 애오라지 오늘 이 밤의 이 신부, 바로 안해인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말이요? 그런데 이 안해 당신이 천하방종한 녀자, 미쳐 시집을 오기 전부터 아이를 낳은 음물 일 줄 어찌 미쳐 생각이나 했겠소!”

예까지 일장 토설하고 나니 방진의 가슴은 썩썩 물이 끓어번지고 불이 펄펄 치솟아 올랐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래 도대체 어떤 놈하고 그 따위 수작질을 했던 말이요? 어서 개개복초하시오!”

그러자 여전히 흐느껴 울며 방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해의 모기 소리 만한 대답

“문초하는 대로 낱낱이 대답은 하겠나이다만은…”

“그래 그 놈의 성명부터 불러대라!”

“성명만은 저도 몰라요.”



“하, 그래 저도 모르는 놈과 한동아리가 되어 구울어 애까지 배고 낳아? 사내놈을 모르다니 애당초 천부당만부당한 헛수작이다.”

“이 년!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할가!”

방진의 울러메는 말에 안해는 갑자기 결의 궤문을 팔딱 열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시퍼런 장도칼을 꺼내여 목에 대고 위협했다.

“한밤중 무작정 상관이 된 사내, 부지거처 성부지명부지의 사내이거늘 내 어찌 알리요. 이제 할 말은 이 뿐이오니 랑군님 백세무강하옵소서.”

말을 마치자 신부는 그 칼을 자기 가슴에 쿵 박았다.

방진은 얼른 그의 손에서 칼을 탁 잡아채었다.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 일종의 욕심이 그로 하여금 칼을 잡아뺏게 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랑군님, 일이 이 지경 되고 내가 어찌 더 살기를 바라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요! 어서 하던 말이나 마저 하오.”

“할 말이 없나이다.”

“아니요. 이자 방금 뭐 무작정 상관이 됐다고 하지 않았소? 그 자초지종 내막을 다 얘기해보오.”

그러자 안해는 여전히 흐느끼면서 말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지금부터 열달 전, 월색이 명랑하고 청풍이 소소한 바로 8월 추석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여염 처자들고 더불어 달놀이를 하고 난 저는 몸종과 함께 저 한강 다리목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때 저의 사촌언니가 나를 보자 기어이 자기 집으로 끌고 갔지요. 막 무가내 언니네 댁에 이르러 이말저말 하다가 한 별실에 인진되어 홀로 깊은 잠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비몽사몽간 웬 두역신 같은 얼굴의 사람, 어쨌던 변장을 하고 나선 듯한 무도한 사나이가 나를 슬그머니 끌어안겠지요. 연약하고 무력한 아녀자로 어찌 그 사나이를 당해 낼 수가 있겠나요?”

“뭘뭘 얼굴에 변장을 한 사람?”

안해의 말에 방진은 그만 졸지에 녹초가 되었다.

크게 짚히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추석날 밤.

바로 그날 그 밤이 아니었던가?

그 때 그는 요긴한 일이 있어 서울 밖 근교에 사는 팔촌 형님네 댁에 간 일이 있었다.

팔촌형님댁은 나이 젊은 데다 요염하게 생긴 인물값을 하느라고 사특한 외에 호화방탕하기 그지없는 녀인이었다.

그런 만큼 일단 남편이 외출하고 난 뒤 밤에 드는 원간한 남자를 호젓이 만나기만 하면 어찌해서든지 치정의 수작을 펼치고야 시름놓는 녀인이었다.

그날 밤 방진은 팔촌형님댁에 이르자 마침 인적은 고요하고 호젓한데 녀인은 더없이 그를 반겨주며 주안상도 탐탁히 차려주는 것이었다.

그 때 팔촌형님이 장사 차로 멀리 떠나고 없어 방진은 불일을 뒤로 미룬 채 송구스런 술만 한두순배 마시고 앉았는데 팔촌형님댁은 어느덧 자기의 달아오른 진한 화장의 요염한 불에 웃음만 말아 올리며 계속 술만 권해왔다.

울며 겨자먹기라 인정에 못이겨 한껏 마시고 아리송해 앉아 있는데 팔촌댁은 뒤미처 이부자리를 쪽쪽 펴놓고 “이보 방진이! 어서 자리에 드오!” 했다.

방진이 주기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누웠는데 그 무엇인가 그의 옷을 하나하나 잡아벗기기 시작했다.

좀 있어 무엇인가 이상한 자극이 있어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실한오리 걸리치 않은 팔촌댁이 자기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지 않는가!

“자, 어서!”

방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야 똑똑히 알아차렸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팔촌댁은 그의 몸을 놓아주려고 안했다.

“오늘 저녁 뛰쳐나가려니는 생각도 마오.”

그러나 그에 넘어갈 방진이가 아니었다.



한번 빠지면 그 후과가 어떠한지라는 것을 모를 어리숙한 방진이가 아니었다.

하여 그는 대수 옷을 걸치고 문을 박차고 내뛰었다.

그가 기어이 문턱을 넘어서는 때 그 무엇인가 얼굴에 와 탁 마치며 터졌다.

팔촌댁이 쥐여뿌린 먹물통이었던 것이다.

방진은 온 얼굴에 뿔뿔이진 먹물을 대수 쥐여 씻으며 내뛰었다.

헌데 저만큼 앞에는 방망이를 든 야경군들이 저벅저벅 목표물을 찾아 걸어오고 있었다.

야심한 밤, 맞띄우는 날이면 시끄러울 건 불보듯 뻔했다. 방진은 얼른 몸을 돌려 소소리 높은 담장을 넘어 불이 꺼진 문이 방싯 열린 후원 별당으로 새어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안침진 곳에 꼬꾸라져 잠이 들었다.

어느 때나 되었는지 그가 돌아누우며 불라니 어렵곳 곁에 한 량자가 달게 자고 있지 않겠는가.

취중 제탄에도 찬찬히 뜯어볼라니 이건 틀림없는 자기의 약혼녀가 아니겠는가?

“아, 나의 량자!”

방진은 두말없이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처녀는 반항했다.

“아니, 아니 이러지 마오. 나 방진이요.”

“흥, 방진?”

처녀가 온 얼굴이 새까만, 산발의 두억신 사나이를 제 약혼 남편으로 알고 받아줄리 만무했다.

량자는 한사코 반항하며 귀를 딱 떼물었다.

영? 이려고 보면 이는 자기의 색시가 아니지 않는가? 하긴 두루 살펴보니 집도 왕청 같은 다른 집이 아니냐?

하지만 이미 내친 걸음의 악몽 같은 일이라 방진은 기어이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정신없이 뛰쳐나왔다...

그러니 방진으로서도 어찌 짚이는 데가 없겠는가!

“여보! 그 때 그 남자에게 표를 해놓은 것은 없었소?”

“왜 없겠어요. 자질이 천한 이내 몸은 이미 한순간에 망쳤지만 일후 내 힘, 부모님들의 힘을 빌어 설원할 표적으로 그 무지막지, 나의 랑군님의 존성대명을 랍용한 령랑(令郎)의 왼쪽 귀방울 끝을 똑 물어뜯었겠지요.”

아, 틀림없는 자기 안해!

바로 그날 밤 상관한 녀인이 바로 이 녀자가 아닌가!

“여보, 이내 왼쪽 귀방울을 여겨보오.”

“예?!”

새 신랑의 험한 귀상처자국을 여겨보던 랑자는 그만 그의 품에 와락 안겨들며 방성통곡을 하였다.

“여보세요. 세상에 이런 기묘한 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날 저녁 얼굴은 그 모양이고 또 갑자기 그런 허무한 생각을 다하게 되었던가요? 예? 어서 이야기해줘요.”

“여보, 진정하고 내 말을 마저 들어보오.”

방진은 부인의 옥수를 부여잡은 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날 저녁의 옛말 같은 일단지사를 또 한번 자초지종 그대로 얘기하였다.

“이러고 보면 나도 기실은 패덕한 사나이, 내 다신 그런 일이 없겠으니 천만번 용서해주오. 하지만 우린 천상 천하 유일무이의 한쌍 배필인 줄 아오!”

“아아 랑군님!”

랑자도 일이 이렇게 신묘하고 기쁘게 매듭이 풀리고 원한이 기쁨으로 변할 줄은 천상 꿈박이라 더 어찌할 줄을 몰라했다.

드디어 밖에서 “꼬끼요!” 하고 장닭이 새날을 알리는 힘찬 해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장도를 툭 꺾어 던져버린 방진은 그제야 생각난 듯 안해를 기꺼이 일으켜 안아세우며 재촉했다.

“여보, 어서 우리 아들을 안아오오. 내 이제부터라도 남편구실, 애비구실을 잘해야겠소.”

그러니 안해로서도 더 마다할리 있겠는가!